

# 고대 문헌에 나타난 ‘天降’의 의미 고찰

朴晟佑·文致雄\*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天’과 ‘降’의 문자 분석
3. 출토문헌에 나타난 ‘天降’의 用例 검토
  - 3.1 商代 甲骨文의 ‘降’
  - 3.2 西周 金文의 ‘天降’
  - 3.3 戰國시기 출토문헌의 ‘天降’
4. ‘天’ 풀이 분석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한중 두 국가의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天降’과 관련된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 사료에서는 대표적으로 일연의 《三國遺事》 도입부 古朝鮮編에서 桓雄이 무리와 함께 天에서 내려왔다는(降) 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 중국의 사료에서 또한 위인의 강림과 더불어 비교적 다양한 표현을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尙書》, 《詩經》, 《周禮》, 《禮記》, 《左傳》, 《漢書》, 《孟子》 등에서 天이 사람이나 명령, 예의 법도와 더불어 인간사의 모든 길흉화복을 내렸다는(降) 기록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자의 통상 적인 의미로 보면 ‘天’은 ‘天空(하늘)’, ‘降’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다’로 풀이하여 ‘天降’을 단순하게 ‘하늘에서 내려가다’로 인식한

\* 明知大 中文科 客員教授(sunswpark@naver.com) · 弘益財團 研究院長(cumoon@hanmail.net)

다. 그러나 고대 문헌에 근거하면 일찍부터 ‘天’은 물리적 공간의 ‘하늘(天空)’의 의미 외에도 절대 권위를 가진 인격체 또는 그 인격체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국가 혹은 개인의 대소사를 행하기 전 허락, 지시, 자문을 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周書·大誥》에서 “天이 위엄을 내려 영왕께서 나에게 큰 보배로운 거북을 남겨 주시어 天의 밝으심을 이어받게 하였다(天降威, 用寧王遺我大寶龜, 紹天明).”라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하늘의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신성한 대상 혹은 특정 공간의 절대적인 법,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天降’을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가다’로 풀이하기보다는 그 내포된 의미에 대하여 세부적인 접근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天’과 ‘降’의 고문자 자형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본래 의미를 이해하고, 출토자료의 用例를 분류 제시하여 파생된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는 동시에 전래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고대 문헌에 기록된 ‘天降’의 의미를 재검토한다. 최종적으로 ‘天降’의 해석에 관하여 再考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 2. ‘天’과 ‘降’의 문자 분석


모든 문헌자료는 1차적으로 문자를 정확히 해독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다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일찍부터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고문자 考釋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고, 필자 또한 이러한 견해에 공감한다.<sup>1)</sup>

본 장에서는 출토자료를 중심으로 ‘天’과 ‘降’의 자형 구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전래문헌의 자형 풀이를 참고하여 글자의 본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林澐(1986: 36-38), 劉釗(2011: 228-229).

먼저, 출토된 殷商時期 甲骨卜辭에서 확인할 수 있는 '天' 형태를 살펴보면

·  (H11:96),  (《合》17985),  (H11:24), ,

·  (《合》22453)<sup>2)</sup> 등으로 마치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으로 머리 부분을 확대시켜 나타냈다. 주지하다시피 갑골문 용례를 보면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天空(하늘)'의 의미는 殷商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天'와 동의어로 '天(大)方(《合》<sup>3)</sup>20475)', '天(大)戊(《合》22054)'로 쓰이거나 "경진일에 왕은 정수리에 질병이 없을 것이다(庚辰王弗疒{疾}朕天)." (《乙》<sup>4</sup>)9067)라 하여 '사람의 머리' 혹은 '사람의 정수리'를 의미했다. 《說文》<sup>5)</sup> 또한 "天은 顛(정수리)이다. 지극히 높아 上(더 높은 곳)이 없다(天, 顛也. 至高無上)."라고 하여 '天'은 본래 숭고하거나 어떠한 신비로운 함의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사람의 가장 높은 곳인 '사람의 머리나 정수리'를 가리키다가 후대로 오며 물리적 하늘의 의미와 함께 추상적으로 가장 높은 공간이나 절대 권위의 권력자,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의지, 뜻 등으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6)</sup> 따라서 殷商시기 '天'과 '降'이 함께 쓰인 용례는 찾아볼 수 없고, 西周시기에 天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降과 함께 최초로 등장한다.

'降'의 자형 형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降'은 《說文》에서 "내려가다. 阜를 의미요소로 하고, 夨를 소리요소로 한다(降, 下也. 從阜, 夨聲)."고 하였다. 먼

저, 殷商시기 갑골문 자형 형태를 살펴보면 ,  (《合》

2) 劉釗等編纂(2014: 2-3).

3) 《合》은 《甲骨文合集》의 약칭이다. 郭沫若(1982).


4) 《乙》은 《殷墟文字乙編》의 약칭이다. 董作賓(1948).

5) 《說文》은 《說文解字》의 약칭이다. [漢]許慎撰; [宋]徐鉉校定(1963).


6) '天'의 자형과 의미에 대한 분석은 《출토자료를 통해 본 '天'의 본義와 변천 연구》에서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었다. 朴晟佑, 文致雄(2020: 23-52).



6664正)',  (《說文》808正)',  (《說文》19628)',  (《說文》30386)'<sup>7)</sup>

등으로 '阜'와 두 개의 '止'로 구성되었다. 즉, 두 발로 '언덕(阜)'에서 내려오는

형태의 회의자로 확인된다. 또 다른 문자 '陟'의 갑골 자형은  (《說文》

20271)',  (《說文》1667)',  (《說文》15363正)',  (《說文》15366)',

 (《說文》34286)<sup>8)</sup> 등의 형태로 '降'과 '陟'의 자형 편방을 대조해보면 발의






방향이 위 아래로 상반되게 표시되어 '내리다()'와 '오르다()'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降'은 일찍부터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후대까지 전승되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자형 '降'의 편방 '阜' 분석을 통하여 '降'의 의미를 더욱 면밀히 따져보도록 한다. 《說文》에서 “阜는, 높고 큰 땅으로 돌이 없는 산이다. 상형이다. 무릇阜에 속하는 한자는 모두阜를 의미요소로 한다(阜, 大陸山無石者, 象形. 凡阜之屬皆從阜).”라 하였다. 문장에서 “돌이 없는 산이다. 상형이다(山無石者, 象形).”라는 부분에 대한 段玉裁 注를 보면 “《說文》 ‘山’字에서는 ‘돌이 있고 높다. 상형이다’라 하였고, 여기에서는 ‘돌이 없다’라고 하여 돌이 있다(山)와 구별하였다. 詩에서 ‘山처럼阜처럼’이라 하였다. 상형이라 하였는데, 토산이 높고 크며 위가 평평하여 층층이 쌓아서 높게 만드는 모습을 형상하였다는 뜻이다. 위는 그 높은 모습을 형상하였고, 아래는 그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형상하였다(山下曰, 有石而高, 象形. 此言無石, 以別於有石者也. 詩曰, 如山如阜. 山與阜同而異也. 釋名曰, 土山曰阜, 象形者, 象土山高大而上平, 可層叅而上, 首象其高, 下象其三成也).”라고 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보면 '阜'는

7) 劉釗等編纂(2014: 791-792).

8) 劉釗等編纂(2014: 789-790).

위가 평평한 山과 비슷한 높고 큰 땅으로 현재 대부분 '언덕'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阜'의 갑골 형태는  (《說文》10405正),  (《說文》19215),  (《說文》27988),  (《說文》20600),  (《說文》22391)<sup>9)</sup> 등으로 羅振玉은 산릉의 형태를 나타내었다고 하였고, 葉玉森은 자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丨' 부분은 흙산의 높고 가파른 모습을 형상하였고, '凵' 등은 경사 층을 형상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徐中舒는 앞서 언급한 의견과 다르게 고대 움집에 오르내릴 수 있는 발 디디는 곳의 전체 모습을 형상하였다고 하였다.<sup>10)</sup>

'山'의 갑골 자형은  (《說文》33233正),  (《說文》34711),  (《說文》34167),  (《說文》6571正), '凵'(H1:123)<sup>11)</sup> 등으로 '阜'를 가로로 놓은 형태와 비슷하다. 더욱이 《說文》에서 '陵', '陽', '陸', '阿', '陂', '阪', '隴', '陟', '陲' 등 土地와 관련된 여러 문자가 '阜部'에 속하여 阜의 고대 문자는 본래 산의 언덕 혹은 절벽 등을 형상하였고, 의미 또한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降'의 本義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降'의 전체적인 문자 형태와 전술한 '阜' 분석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높은 공간으로부터 아래로 점차 내려온다는(下) 의미가 '降'의 자형 구성에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계속해서 先秦시기 출토자료에 쓰인 '天降'과 관련된 用例를 검토하여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시기별로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그 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9) 劉釗等編纂(2014: 788).

10) 李圃主編(2004: 811), 李孝定編述(1970: 4129-4130), 于省吾(1999: 1253).

11) 劉釗等編纂(2014: 538-539).

### 3. 출토문헌에 나타난 ‘天降’의 用例 검토

#### 3.1 商代 甲骨文的 ‘降’

본 장에서는 先秦시기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天降’의 용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언급하였듯이 殷商시기 ‘天’은 본래 ‘사람의 머리’ 혹은 ‘사람의 정수리’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갑골문에서는 ‘天’과 ‘降’을 함께 사용한 용례는 찾아볼 수 없고 ‘내려 보내다(가다)’의 의미로 쓰인 ‘降’의 용례만 확인할 수 있다.

- (1) 戊戌卜, 賓鼎{貞}: 茲邑亡降困{憂}  
 戊戌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점치기를: 이 邑에 우환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合》7852正)
- (2) 癸未卜, 賓鼎{貞}: 茲雹佳{惟}降困{憂}  
 癸未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점치기를: 이 우박이 우환을 내릴 것이다  
 (《合》11423正)
- (3) 癸未卜, 賓鼎{貞}: 茲雹不佳{惟}降困{憂}. 十一月  
 癸未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점치기를: 이 우박이 우환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十一月  
 (《合》11423正)
- (4) 丁巳卜, 鼎{貞}: 亡降疾.  
 丁巳일에 묻습니다: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合》13855)

(5) 己巳卜, ……其循(福)<sup>12)</sup>降.

己巳일에 묻습니다. 아마도 복을 내릴 것이다

(《〈합〉》20548)

이상 출토된 갑골문 용례 (1)-(5) 내용에 근거하여 '降'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으로 재환이나 복의 원천이 추상적 공간이나 대상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의미를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殷商시기 '降'은 비나 우레, 눈 등 형상을 인식할 수 있는 물체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지만<sup>13)</sup> 길흉화복이 접근해온다는 불가항력의 상황을 서술한 문장에 주로 쓰였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배경 아래 周代에 점차 인격화한 天의 의미가 생성되며 降과 함께 쓰여 모든 일을 주재하는 존엄한 대상의 출현이나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길흉화복이 내려온다는 의미로 발전되어 사용되기 시작한다.

### 3.2 西周 金文의 '天降'

전술하였듯이 先秦시기 출토문헌에서 '天'과 '降'이 함께 쓰인 用例는 西周 청

12) 晁福林的 풀이를 따른다. 晁福林(2005).

13) 갑골문에는 비, 우레, 눈 등 대기 중에 생성되는 물리적인 현상에는 대부분 '降과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합〉》12051正: 甲辰일에 균열을 내어 侁이 점치기를: 오늘 아마도 비가 올 것이다(甲辰卜, 侁鼎(貞): 今且其雨). 《〈합〉》14129正: 壬申일에 균열을 내어 古가 점치기를: 帝가 비가 오도록 명령할 것이다(壬申卜, 古鼎(貞): 帝命雨). 《〈합〉》14129反: 王이 점괘를 판단하여 말하길: 帝가 지금 2월에 우레를 내릴 것이다. 만약 丙일에 내린다면 不吉하다. 눈이 내릴 것이다.……(王占曰: 帝隹(惟)今二月命雷. 其隹(惟)丙不吉. 雪,……). 《〈합〉》914正: ……賓이 점치기를: 다음 乙亥일에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나올 것이다(……賓鼎(貞): 翼(翌)乙亥不雨, 易(賜)日)라 하였다. 이 예문에 근거하면 기우와 관련된 단어 자체에 동사 용법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기상 현상에 속하는 단어와 명령(令)이 함께 사용되었고, 더욱이 해(日)의 경우 하사(賜)의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 고대시기 대기 중에 일어나는 기상 현상을 자연 발생이 아닌 帝가 하사 혹은 명령하다'의 개념으로 인식된 듯하다. 갑골문 번역에 대한 견해는 필자가 2018년 7월 《동아시아 출토문헌 연구회》에서 발표된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혁 선생님의 《〈殷墟文字丙編〉028~038譯註》와 《〈殷墟文字丙編〉055~060譯註》의 발표를 참고하였다.

동기 金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 師匄簋: “王曰: 師匄, 哀才{哉}, 今日天疾畏{威}, 降喪, 首德不克, 夔, 古{故}亡承于先王.”

왕이 말하였다. ‘師匄! 애통하구나! 오늘 天이 진노하여 재앙을 내렸다. 최고의 덕을 (지닌 사람)도 극복할 수 없으니 先王으로부터 (왕권을) 계승받을 수 없다’

(《集成》4342) 西周中期

- (7) 禹鼎: “烏{鳴}虜{呼}哀哉! 用天降大喪于下或{國}, 亦唯噩{鄂}戾{侯}駿{馭}方, 衛{率}南淮尸{夷}、東尸{夷}廣伐南或{國}、東或{國}, 至于歷內.”

아. 슬프도다! 天이 下國에 큰 재앙을 내려 噩侯 馭方이 南淮夷와 東夷를 거느리고 남국과 동국을 광범위하게 공격하여 歷內까지 이르렀다

(《集成》2833) 西周晚期

- (8) 虘盨: “剗{則}隹{唯}輔天降喪{喪}”

天을 보좌하여 재앙을 내렸다

(《集成》4469) 西周晚期

- (9) 中山王響鼎: “天墜{降}休命于朕邦……”

天이 나라에 현명한 명령을 내려……

(《集成》2840) 戰國中期

위의 예문 (6)-(9)에서는 天이 인간사의 모든 일을 주재하는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는 개념 아래 天이 결정의 주체가 되어 길흉화복을 통제하고 승인하는 존재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商代 또한 호칭하는 단어 사용만 달랐을 뿐 절대적 권위를 나타내는 天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天이 이 같은 최고 통치자로 여겨졌던 기록은 전래문헌에 더욱 상세히 드러난다. 《尙書·周書·召告》에서 “天은 이미 큰 나라 殷의 명을 끝내어 殷의 많은 어진 왕들은 天에 계십니다. 이에 그 후왕과 백성들은 더욱 그 명을 복종하였으나 그 마지막은 지혜로운 자는 숨고 병폐 있는 자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자식을 끌어안고 이끌어 슬프게 天에게 부르짖으며 도망갔으나 나가다가 잡혔습니다. 오! 天 또한 사방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니 마땅히 명을 돌아보고 힘을 다해 다스려야 합니다. 왕은 신속히 덕을 공경하십시오. 옛 선대의 夏나라를 보면, 天이 인도해주시고 자손까지 보호하여 머리를 天에게 조아렸습니다. 오늘에 와서 이미 그 명이 다하였습니다. 현재 殷나라를 보면 天이 인도해주시고 지위를 보존해 주시어 머리를 天에게 조아립니다. 오늘에 와서 이미 그 생명이 다하여 이제 沖子が 계승받으니 나이 든 자들을 내치지 마옵소서. 이르기를 '우리 선인들의 德을 헤아린다' 하였거늘 하물며 '天과 상의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天既遐終大邦殷之命, 茲殷多先哲王在天, 越厥後王后民, 茲服厥命。厥終, 智藏瘝在。夫知保抱攜持厥婦子, 以哀籲天, 徂厥亡, 出執。嗚呼! 天亦哀于四方民, 其眷命用懋。王其疾敬德。相古先民有夏, 天迪從子保, 面稽天若; 今時既墜厥命。今相有殷, 天迪格保, 面稽天若; 今時既墜厥命。今沖子嗣, 則無遺壽耇, 曰其稽我古人之德。矧曰其有能稽謀自天)"라고 하여 天이 고대시기 최고 통치자로 公認된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孟子·萬章上》에 “만장이 말했다. ‘요임금이 天下를 순에게 주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순이 천하를 소유하였는데 누가 준 것입니까?’ 말씀하셨다. ‘天이 주었다’(萬章曰: ‘堯以天下與舜, 有諸?’ ‘孟子曰: ‘否。天子不能以天下與人。’ ‘然則舜有天下也, 孰與之?’ 曰: ‘天與之。’)”라고 하여 통치자가 天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제패하여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天下를 소유하는 결정은 天에게만 있다는 사상을 보여주는 구절로 이러한 관념 아래 天에서 아래로 내려보낸다는 의미인 ‘天降’의 출현은 필수불가결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 3.3 戰國시기 출토문헌의 ‘天降’

마지막으로 戰國시기 죽간에서 ‘天降’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郭店<sup>14)</sup>·性自命出》簡2~簡3:

眚(性)自命出, 命【2】自天降……【3】

본성은 命으로부터 나오고, 命은 天으로부터 내려온다.

(11) 《上博<sup>15)</sup>·三德》簡2~簡3:

訖(忌)而不訖(忌)[之], 天乃降(降)材(災)[之]; 已(已)而不已(已)[之],

【2】天乃降(降)隕(異)[之]……【3】

기피해야 할 일을 기피하지 않고, 밋어야 할 것을 밋지 않으면, 天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12) 《上博·凡物乙》簡3:

天墜(地)立冬(終)立(始), 天降(降)五(度).

天地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고, 天은 五(五行)를 내렸다.

(13) 《清華<sup>16)</sup>·程寤》簡5:

女(如)天降(降)疾, 旨味既甬(用), 不可藥, 時(時)不遠.

만일 天이 재앙을 내린다면 {건강을 해치는} 달콤한 음식만 많이 먹게 된다. {그리하여} 구제할 수 없게 되고 죽을 날이 멀지 않게 된다.

(14) 《清華五·厚父》簡五:

古天降下民, 玆(設)萬邦, 夔(作)之君, 夔(作)之市(師), 隹(惟)曰其(助)上帝(亂)下民.

옛날 天이 백성을 내리면서 만방을 만들고, 군주를 만들고, 스승을 만든 것은 상제를 도와 백성을 다스리게 한 것이다.

14) 《郭店》은 《郭店楚墓竹簡》의 약칭이다. 荊門市博物館(1998).

15) 《上博》은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의 약칭이다. 馬承源(2001).

16) 《清華》는 《清華大學藏戰國竹簡》의 약칭이다. 李學勤(2010).

예문 (10)-(14)의 죽간 자료에 나타난 天降의 용례 또한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높은 장소나 존엄한 대상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욱이 예문 (10)에서 '命은 天으로부터 내려온다(命自天降)'라고 하여 인격화한 존엄한 대상이나 특정한 높은 공간으로부터 한 개인의 삶 또한 제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문 (12)의 '天은 五度を 내렸다(天降(降)五度(度)).'에서 五度란, 五行을 의미한다.<sup>17)</sup> 전래문헌 《鶡冠子·天權》을 보면 “五도가 바르면 시행되지 않는 일이 없다(五度既正, 無事不舉).”라 하여 陸伸 注에서 “좌는 목, 우는 금, 앞은 화, 뒤는 수, 가운데에는 토이다(左木、右金、前火、後水、中土是也).”<sup>18)</sup>라고 풀이하였고, 《淮南子·兵略訓》에서 “음기는 팔풍{팔방의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행동은 五도를 벗어날 수 없다(音氣不戾八風, 誦伸不獲五度).”라고 하여 許慎의 注에서 “五도는 五行이다(五度, 五行也).”<sup>19)</sup>라는 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예문 (14) 《清華五·厚父》의 문장 “옛날 天이 백성을 내리면서 만방을 만들고, 군주를 만들고, 스승을 만든 것은 상제를 도와 백성을 다스리게 한 것이다(古天降下民, 畀(設)萬邦, 復(作)之君, 復(作)之市(師), 惟(惟)曰其勸(助)上帝(亂)下民)”라는 내용은 전래문헌 《孟子·梁惠王下》에서 《尚書》의 일부를 인용한 ‘天이 백성을 내리고, 군주를 만들고, 스승을 만든 것은 상제를 돕기 때문에 충애를 한 것이다(天降下民, 作之君, 作之師. 惟曰其助上帝, 籠之四方)’라는 부분과 문장 유형이 거의 동일하다. 이 또한 만물을 주재한다는 天의 관념을 전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절로 일찍부터 천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였고, 후대로 고스란히 전승되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17) 馬承源(2001: 229).

18) 王雲五主編(1939: 108).

19) 何寧撰(1998: 1052).

#### 4. ‘天’ 풀이 분석

앞서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에서 살펴본 ‘天降’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최초 ‘天’은 단지 사람의 가장 높은 부위를 가리키다가 점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권위의 권력자로 인간사의 모든 일에 개입되어 결정 혹은 명령이나 승인하는 중요 역할을 하였다. 《周書·大誥》: “天은 寧王을 훌륭하게 하시어 우리 작은 周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寧王께서는 오직 점을 따르시어 명을 받으셨다. 지금 天께서 백성을 도우시니 또 점을 따라야 한다(天休于寧王, 興我小邦周, 寧王惟卜用, 克綏受茲命. 今天其相民, 矧亦惟卜用)”라 하여 최고 존엄자로 여긴 후대의 기록이 다시 한 번 이를 보충 증명한다. 더욱이 《清華簡·皇門》簡6: ‘모두 天神에게 제사를 드렸다(咸祀天神)’라 하여 춘추전국시대에 天과 神을 함께 사용하였고, 이는 후대로 갈수록 점차 신격화한 인격체 혹은 신성한 높은 공간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바탕 아래 아래로 내려 보낸다는 의미의 ‘降’과 함께 사용한 ‘天降’의 출현은 유일무이한 절대 권력의 상징을 더욱 뚜렷하고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天降’의 의미 이해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여 바라봐야 할 것인가? 본 장에서 다른 두 관점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天은 특정 공간을 의미한다.

전술한 문자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天’은 ‘大’와 동의어로 ‘天(大)方(《說文》20475)’, ‘天(大)戊(《說文》22054)’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 밖에 갑골문의 다른 用例를 제시해 보도록 한다.

(15) 辛酉卜, 貞在  天邑商公宮衣.



辛酉일에 균열을 내어 에서 짐치기를: 天邑上甲廟에서 제사할 것이다  
(《〈습〉》36541)

이전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위 예문 중 '天邑'을 '大邑'으로 읽어야 한다는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전래문헌 《尙書·周書·多士》의 "이에 나는 감히 그대들을 天邑 商에서 구하려는 것이다(肆予敢求爾于天邑商)"라는 구절에서 帝王이 있는 수도를 '天邑'으로 나타내었다.<sup>21)</sup> 따라서 위 갑골 예문 또한 '大邑'이 아닌 '天邑'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西周 청동기 天亡篇(《集成》4261)의 銘文 내용 중 "왕이 天室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왔다(王祀于{于}天室, 降)"와 何尊(《集成》6014)의 銘文 "天에서 武王을 칭송하는 裸祭를 하고 돌아왔다(復甞玪{武}王豐{禮}禘{裸}自天)"라고 하는 두 문장에서 '天室' 혹은 '天'으로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나타내었다. 《春秋左傳·成公十三年》에서 "국가의 대사는 제사와 전쟁에 있다(國之大事, 在祀與戎)."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중요한 지역이나 중대한 의식이 거행되는 공간에 '天'이 함께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天'의 다양한 의미 중 하나로 어느 중요한 공간이나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비범한 인물이나 통치자 혹은 지배층의 인물이 특정 중요 지역으로부터 와서 피지배층을 보호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발상지를 나타내주기 위한 수단으로 '天'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天'은 조상을 의미한다.

전술하였듯이 天의 여러 의미 중에서 무한한 권위와 광활한 능력을 소유하였다는 내용은 周代 이후의 자료에서 꾸준히 입증되었다. 또한 이전 殷商시기 갑골문의 경우에는 帝 혹은 上帝가 周代의 天和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였다. 주

20) 李圃主編(1999: 17-28).

21) 黃德寬主編(2007: 3459).

지하다시피 帝 혹은 上帝는 전쟁, 수확, 도읍지 건설, 왕의 행동 등 당시 중요 일정에 허가, 승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sup>22)</sup> 《〈합〉》14172): “점치기를: 帝가 근심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貞: 帝不降摧)”라고 하여 ‘天降’과 동일하게 ‘帝’가 어떠한 행위를 아래로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용례는 전래문헌에서도 확인가능하다.

(16) 《新書·卷七·耳痺》: “於是上帝降禍, 絕吳命乎直江”

그리하여 상제가 재앙을 내려 뒤틀린 운명을 直江(浙江)에서 멸망하게 하였다

(17) 《呂氏春秋·季夏紀·明理》: “上帝降禍, 凶災必亟”

상제가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은 필히 극렬하다

商代 사람들은 上帝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또한 帝와 商王의 조상을 결부시켜 돌아간 직계 부왕의 시호 앞에 帝자를 붙여 ‘帝丁’, ‘帝甲’, ‘帝乙’ 등으로 호칭하여 의식을 거행하였다.<sup>23)</sup> 필자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앞서 나열한 예(1) 《〈합〉》7852正): “戊戌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점치기를: 이 邑에 우환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戊戌卜, 賓鼎(貞): 茲邑亡降困(憂))”, 예(4) 《〈합〉》13855): “丁巳일에 묻습니다: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丁巳卜, 鼎(貞): 亡降疾)”, 예(5) 《〈합〉》20548): “己巳일에 묻습니다. 아마도 복을 내릴 것이다(己巳卜, ……其循(福)降)” 등의 주어가 생략 혹은 부식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문장을 帝와 降이 함께 사용된 갑골문 용례에 비추어 본다면 ‘降(내리다)’하였다는 행위자를 帝로 유추해 볼 수 있다.<sup>24)</sup> 즉, 商代에는 帝가 어떠한 행위를 降(내리다)한 동시에 조상의 호칭에 帝를 넣어 사용하였고, 商代의 ‘帝’가 周代에 ‘天’의 명칭으로 대체되어 동

22) 陳夢家(1988: 571).

23) 裘錫圭(2012: 121-124).

24) 陳夢家(1988: 571).

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면, 周代 金文에 나타나는 '天降'의 '天' 또한 조상을 의미하고, 조상이 어떠한 행위를 降(내리다)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天'의 보좌로 왕이 작고한 위대하신 아버지 文王을 받들어 제사 드리고, 上帝를 크게 섬긴다(天亡又{宥}, 王衣{卒}祀于{于}王不{丕}顯考文王, 事喜上帝).<sup>25)</sup>라는 청동기 天亡簋 銘文의 일부 문장과 《史記·封禪書》의 '중묘 제사는 名堂에서 文王을 上帝와 함께 제사하였다(宗祀文王於明堂以配上帝).'<sup>26)</sup>라는 전래문헌 내용에 근거한다면 선조와 上帝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헌 기록 또한 존재하여 단지 다른 관점의 견해로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견이 있어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天降'에서 '天'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항으로 고대시기 '天'의 중대한 역할과 더불어 중요 지역에 '天'을 결부한 문헌 기록에 근거하면 중요 지역이나 인물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작용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해 본다. 더욱이 '내려가다(降)'와 함께 사용하여 지역이나 공간을 더욱 강조하여 의도를 명확히 밝혀주기 위한 수단이나 비범한 인물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漢書·揚雄傳下》의 "天에서 백성을 내셨으니 (백성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天降生民, 侏侗顛蒙……)."라는 문헌의 기록이나 와당에 새겨진 '單于天降'<sup>25)</sup>이 이 같은 인식의 바탕 아래 서술되었다고 판단된다.

## 5. 나오는 말

현재 고대 한중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天降'의 '天'은 '하늘', '降'은 '내려가다'의 의미로 풀이하여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내려가다'로 해석한다. 《郭店·太一生水》簡10에서 "下{아래}는 토다. 地{땅}라고도 한다. 上{위}은 氣다. 天

25) 王文濤(2013: 56-62).

{하늘}이라고도 한다(下, 土也, 而胃(謂)之陞(地). 上, 熒(氣)也, 而胃(謂)之天)"라는 戰國시기 竹簡의 用例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고대시기 '天'은 땅과 대비되는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하늘'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점차 '天'이 자연 하늘을 의미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며 '天降' 또한 막연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일차원적인 의미로 점차 굳어지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天'은 본래 사람의 가장 높은 곳인 '정수리'를 나타내었으며, 후대에 이러한 의미에 기반하여 높은 대상 즉, 범접할 수 없거나 절대 권위를 가진 존재 혹은 그 존재가 거주하는 어떠한 높은 공간의 의미로 확대 전승되었고, 특히 일을 행하기 전 허락, 지시, 자문을 구하는 대상의 의미로 확대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헌에서 살펴볼 수 있는 '天降'의 올바른 의미 파악을 위하여 '天'과 '降'의 고문자 자형 구성을 파악하고, 출토자료 용례를 제시하는 동시에 전래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상호 보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天降'의 '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다른 두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여 특정 공간 혹은 조상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天'과 '降'의 자형 풀이와 출토, 전래 문헌의 용례를 종합 고려했던 결과 '天降'을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왔다'로 풀이하기보다는 당시 '天'의 역할과 지위에 근거하여 天과 降을 함께 사용하여 중요 지역을 나타내거나 인물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즉, 특정 지역을 강조하였거나 비범한 인물의 출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서술 용법으로 '天降'을 사용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고 집필 과정에서 살피지 못한 자료가 적지 않고, 논증 과정에서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기대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한다.



< 參考文獻 >

- [漢]班固撰(1962), 《漢書(全十一冊)》, 北京: 中華書局.
- 晁福林(2005), <先秦時期“德”觀念的起源及其發展>, 《中國社會科學》 第4期.
- 陳夢家(1988), 《殷墟卜辭綜述》, 北京: 中華書局.
- 陳奇猷校釋(1984),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 董作賓(1948), 《殷墟文字乙編》, 台北: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郭沫若(1982), 《郭沫若全集·歷史編·第一卷》, 北京: 人民出版社.
- 郭沫若主編(1982), 《甲骨文合集》, 北京: 中華書局.
- 何寧撰(1998),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 洪起熏發行(1987), 《<原本>三國史記·三國遺事》, 서울: 大提閣.
- 胡厚宣(1999), 《甲骨文合集釋文》,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黃德寬主編(2007), 《古文字譜係書證(全四冊)》, 北京: 商務印書館.
- 黃懷信(2011), 《清華簡<程寤>解讀》, 曲阜師範大學孔子研究所.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426](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426)
- 季旭昇(2013),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讀本》, 臺北市: 藝文出版社.
- [漢]賈誼撰; 閻振益, 鍾夏校注(2000), 《新書校注》, 北京: 中華書局.
- 金赫(2018), <《殷墟文字丙編》055~060譯註>, 《동아시아 출토문헌 연구회》 7月.
- 金赫(2019), <《殷墟文字丙編》024~031譯註>, 《中國語文論叢》 第96輯.
- 荊門市博物館(1998),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 [漢]孔安國傳; [唐]孔穎達正義; 黃懷信整理(2007), 《尚書正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雷縉碕, 喻遂生(2015), <甲金文“阜”字及字符“阜”的兩個來源>, 《中國語文》 第3期.
- 李圃主編(1999), 《古文字詁林》 1冊,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李圃主編(2004), 《古文字詁林》 十冊,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李孝定編述(1970), 《甲骨文字集釋》, 台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李學勤(2010), 《清華大學藏戰國竹簡》, 上海: 中西書局.
- 林漢達(1986), 《古文字研究簡論》, 吉林: 吉林大學出版社.
- 劉釗(2005), 《郭店楚簡校釋》,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 劉釗(2011), 《古文字構形學》,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 劉釗等編纂(2014), 《新甲骨文編》,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 馬承源(2001),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莫伯峰(2016), <從字體類型看甲骨文“阜”字及字符“阜”的四種形體——兼與雷縉碕、喻遂生

- 二先生商榷》，《中國語文》第5期。
- 朴晟佑, 文致雄(2020), <출토자료를 통해 본 '天'의 본義와 변천 연구>, 《中國語文論叢》第97輯。
- 裘錫圭(2012), <關於商代的宗族組織與貴族和平民兩個階級的初步研究>, 《裘錫圭學術文集(古代歷史、思想、民俗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清]阮元校刻(1980), 《十三經注疏》(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 [漢]司馬遷撰(1959), 《史記》(全十冊), 北京: 中華書局。
- 王文濤(2013), <是“天降jiàng單于”, 還是“天降xiáng單于”——天神觀與漢匈政治關係的一個審視點>, 《河北學刊》第33卷 3期。
- 王雲五主編(1939), 《叢書集成初編》, 北京: 商務印書館。
- 王雲五主編(1939), 《慎子及其他二種》, 北京: 商務印書館。
- [漢]許慎撰; [宋]徐鉉校定(1963),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 楊伯峻編著(1962), 《孟子譯注》(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 楊伯峻編著(1990), 《春秋左傳注·修訂本》(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 梁東淑(2007), 《갑골문字典 甲骨文解讀》, 서울: 書藝文人畫。
- 一然 著, 申太永 譯(1996), 《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서울: 한국인문고전연구소。
- 于省吾(1999), 《甲骨文字詁林》 2冊, 北京: 中華書局。
- 張心怡(2010),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七)〈凡物流形〉〉研究》, 國立台灣師範大學國文學系碩士論文。
- 宗福邦, 陳世鏡, 肅海波主編(2003), 《故訓匯纂》, 北京: 商務印書館。

< Abstract >

Meanings of CheonGang(天降) from the Ancient Literature

Park, Seongwoo · Moon, Chiung

In this study, we address a literal · historical understanding of 'Cheongang (天降)', which was interpreted as 'come down from the sky(or heaven)'. Cheongang is emerging element in the process of founding the ancient state. An

existing interpretation that come down from the sky(or heaven) was came from an understanding of myth frame. In myth frame, 'Cheongang(天降)' was interpreted that, we emphasize sacredness through the connection with the heavens or emphasizing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But simultaneously, it has also served as a limit that made an accurate review of the times and circumstance impossible.

The interpretation of Cheongang(天降), 'come down from the sky(heaven)', is the result of faithful application of the primary meaning as written in dictionary. Cheon(天) is sky(heaven), gang(降) is come down or refers to the act of surrendering to the enemy. From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cords of other ancient literature and the excavated texts, we can understand cheon(天)'s various meanings.

In addition to the abstract meaning of sky, cheon(天) points to the existence of the most precious and high-ranking area or person in the world. However, people cannot come down from the sky. Therefore the Cheongang(天降) that defined as the come down from the sky is unscientific and unrealistic. This is the result of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meaning of Cheon(天) and Gang(降).

In here, we extensively collected the excavated texts and literature of the related to ancient Cheon(天) and Gang(降) made a literal analysis and discussion of the character shape and meaning of Cheongang(天降).

Key Words: Cheon(天), CheonGang(天降), Eexcavated text, Meaning of Han-character, Samgukyusa

투 고 일: 2020. 08. 18.

심 사 일: 2020. 09. 04. - 09. 20.

게재확정일: 2020. 09. 25.

